



모두가 꿈꾸는 “自然과 가장 가까운 이름”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왼쪽)와 이규용 대한민국의 환경대응위원회 위원장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 환경대응서 자원순환 부문 대상

롯데칠성음료가 7일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순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칠성사이다의 투명 페트병 전환, 에코팩과 에코절취선 전 제품 적용,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출시, 포장재 경량화 기술 연구개발 등 재활용 용이성 개선 증진 및 자원순환 구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향후 자원 순환을 포함한 환경보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 등 환경 캠페인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고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오롱 모터스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공식 후원

BMW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 모터스가 7일 2021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브랜드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라운드 '나이트 레이스'를 비롯해 올 시즌 남아있는 M클래스의 모든 경기를 '코오롱 모터스 M 클래스' 이름으로 치른다. 코오롱 모터스 M 클래스는 BMW4 쿠페 단일 차종으로 경주가 진행되는 BMW 원메이크 레이스다.

전철원 코오롱 모터스 대표는 “고객에게 BMW 차량의 성능과 매력을 실감나게 전하는 한편 모터스포츠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3대 통증' 요로결석, 여름철 많이 발생 24시간 진료하는 비뇨기과 파악해둬야

요로결석은 갈증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소변 성분과 갈증이 결정화되어 신장을 구성하는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생겨나 내려오는 길에 결석이 생기는 현상이다.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에 환자가 급증한다.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만큼 강한 통증이 특징으로 의학계에서 '3대 통증'으로 분류할 정도다.

여름철에는 땀 배출이 많아져 소변의 양이 줄면서 농도가 높아져 결석이 더 쉽게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 일조량의 증가 역시 비타민D의 형성을 촉진해 이로 인해 갈증 흡수율이 상승하면 요로결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혈뇨와 함께 동반되는 옆구리 통증이다. 옆구리 통증을 자세히 바피보아도 지속되며 이외에 아랫배의 불편함, 잦은 요의, 잔뇨감, 구토, 소화 불량, 복부팽만 등이 나타난다. 특히 혈뇨와 함께 배뇨 이상이나 배뇨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말고 바로 비뇨기과에 내원해야 한다.

체외충격파석쇄술은 요로결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적다. 고에너지의 발생장치에서 충격파를 모아 결석에 집중하는 원리로 피부, 장기의 손상을 줄이며 결석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술이나 마취 없이 치료 가능하고 흉터 발생 우려가 적다. 시술 시간도 30~40분으로 치료 후 1시간만 지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통증이 심한 요로결석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인근에 365일 24시간 요로결석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동대문 열린비뇨기과 안재성 원장(비뇨기과 전문의)

LG, 15조 투자...한국에 기술·인재 허브 만든다

국내 R&D·생산기술 삼각허브 구축 LG IBT 설립, 배터리 전문인력 양성 소부장업체와 협력...밸류체인 강화

LG가 2030년까지 1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을 글로벌 배터리 기술과 인재 허브로 만든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8일 오창 2공장 부지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전례없이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오늘은 미래 먹거리 주도권의 향방을 가능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현재 성기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여 K-배터리가 글로벌 넘버1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0년 간 15조1000억 원 투자

김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차세대 배터리에서도 세계 1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배터리 R&D 및 생산기술 삼각허브 구축, LG IBT(Institute of Battery Tech) 설립을 통한 배터리 전문 인력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협력을 통한 밸류체인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R&D 분야 9조7000억 원을 포함해 총 15조 1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8000여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R&D 생산기술 삼각 허브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생산기술 확보 및 생산라인 증설 등에 1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LG화학은 배터리 관련 첨단 소재 기술 개발 및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2조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R&D·생산기술 삼각 허브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대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터리 R&D 및 생산기술 삼각 허브'를 구축한다. 먼저, 오창 2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전조치기로 육성한다. 2023년까지 약 37만7000㎡ 부지에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파일럿 설비를 비롯해 스마트형 공장 차세대 설

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창1공장은 현재 연간 17GWh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6700여 명의 인력이 자동차전지, ESS전지, 소형 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오창 1공장은 국내 수주 물량 생산과 함께 세계적인 글로벌 물량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대전 R&D 캠퍼스는 고용량 사원계 양극재,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 및 미래형 공정 혁신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를 이끌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전에 2023년말까지 연구동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마곡·과천 등 수도권 연구소는 리튬황·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전지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세계 첫 전문 교육기관 설립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배터리 전문 인력 조기 육성을 위해 오창 2공장에 LG IBT를 설립한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 IBT는 오창 2공장 내 최대 400명 수용이 가능한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만 9500㎡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국내 소부장 업체들과 공동 개발 및 품질개선 활동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배터리 밸류 체인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차세대 유니콘 육성...관악S밸리에 오픈랩 개소

KB금융그룹과 센터 시설 공동 운영 KT, 입주 기업에 창업 인프라 제공

KT가 차세대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다.

KT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는 '관악S밸리'에 KB금융그룹과 함께 '디지털 KT 오픈랩'과 'KB이노베이션허브'를 한데 모아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를 공동 개소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악S밸리는 지난해부터 KT가 관악구, 서울대학교, KB금융그룹 등과 함께 관악구 대학동 및 낙성대동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벤처창업 클러스터다. KT, 관악구, 서울대는 서울대의 우수 인재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과 스타트업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는 총 7개층 500평 규모로 총 3개 기업이 시설을 공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정태호 국회의원, 구현모 KT 대표(오른쪽부터)가 입주 스타트업 알고케어 정지연 대표의 서비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KT

동 운영한다. 지상 2~4층은 디지털 KT 오픈랩, 지상5~6층은 관악 KB 이노베이션 허브, 지하1층~지상1층은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마이워크스페이스'가 자리잡는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입주 기업간 네트워킹, 공동행사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KT 오픈랩에는 4월부터 진행한 '미래 성장기업 발굴 디지털 공모전'에 선발된 기업을 포함해 총 7개 기업이 1기로 입주한다. 미래 성장성과 KT와의 협업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

했다. 브이픽스메디칼, 프롬웨이브, 액션파워, 알고케어, 파프리카메이터랩, 파이미디어랩, 플랫가든이 최종 입주에 선발됐다.

KT는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KT 오픈랩 창업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5G 테스트베드 및 클라우드 오픈랩 연계 등 KT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제공한다. 다양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 KT 사업연계를 통한 서비스 출시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디지털 KT 오픈랩은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방형 협력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이들과 함께 KT 디지털 플랫폼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백신접종, 모바일로 간편하게 인증하세요”

카카오, 12일부터 인증 서비스 시작

모바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한다.

카카오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12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서비스(사진)를 시작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카카오톡 QR 체크인

으로 백신 접종 인증을 할 수 있다. QR체크인 화면에서 '접종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QR코드에 백신 접종 정보도 함께 담기게 된다. QR코드 업 그레이드와 동시에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돼 카카오톡 지갑에 보관된다.

네이버도 12일부터 네이버앱QR체크인 화면에서 백신 접종증명 인증 서비스를 제

공할 예정이다. 네이버앱 QR체크인 화면 하단부에 접종 정보가 표시돼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에서도 백신 접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QR 출입증 서비스 'QR X COOV'를 통해 12일부터 전자예방접종증명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예방접종증명(COOV)과 연계해 패스 앱의 QR출입증 화면에서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